

## 디지털전자산업 동향

우성제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Research Center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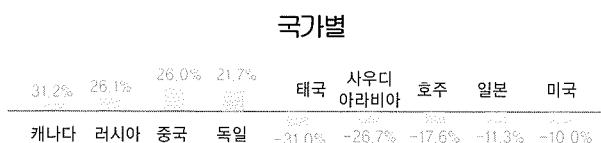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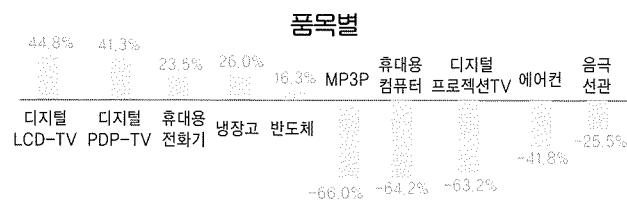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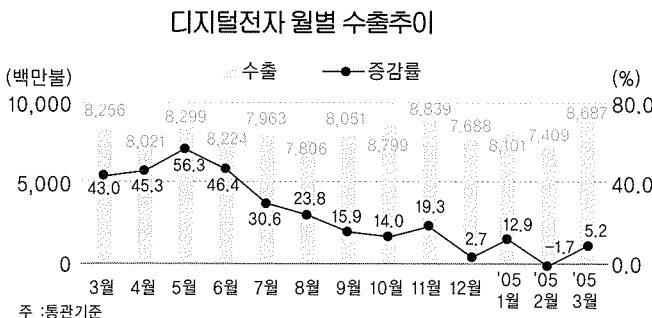
### ■ 2005년 3월 디지털전자 수출

3월 디지털전자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한 86억9천만불을 기록하였다.

3월 디지털전자 수출은 원화강세, 고유가 현상 상승 등 불리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한달만에 전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되었다.

이는 중국,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반도체, 휴대폰 등 국내 주력 품목들이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역대 3월 월간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3월중 일 평균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한 3.6억불대를 기록하였다.



### ■ 2005년 3월 디지털전자 수입

3월 디지털전자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5.7% 증가한 48억5천만불을 기록하였다.

수출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와 IT경기 회복세와 함께 수입수요가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정보통신기기(17.0%)가 전체수입 증가를 주도하면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주요 증가 품목으로는, 휴대용컴퓨터(9천3백만불, 95.9%), 컴퓨터부품(2억1천만불, 19.2%), PCB(1억1천만불, 24.2%) 등을 들 수 있다.

3월중 일 평균 수입액은 지난해 10월이후 5개월만에 2억불대에 진입하면서 전년대비 9.1% 증가하였다.

### ■ 무역수지 동향

- 3월 디지털전자 무역수지는 38억4천만불 흑자 기록
- 지난해 동월대비 증가율은 4.6%, 금액으로는 1억7천만불 증가

무역수지					
	04 4월	5월	6월	7월	8월
무역흑자	3,583	4,167	3,856	3,584	3,538
(단위 : 백만불)	10월	11월	12월	05년 1월	2월
무역흑자	4,070	4,377	3,241	3,751	3,619
	3월	4월	5월	6월	7월
	3,842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대중(7억 2천만불), 대홍콩(6억 3백만불), 대미(4억 8천만불) 순으로 나타나며, 대일( $\Delta$ 4억 7천만불) 디지털전자 무역적자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추이

	04	05.1	2월	3월	05.1~3
E U	12,084	1,091	1,051	1,155	3,298
중 국	7,851	763	763	721	2,246
미 국	8,820	559	536	478	1,572
일 본	$\Delta$ 6,144	$\Delta$ 442	$\Delta$ 422	$\Delta$ 469	$\Delta$ 1,332

### 디지털전자 무역 현황

구분	2005년			2004년		
	1~2월	3월	>3월	3월	1~3월	
수출	전체산업	42,848 (12.4)	24,189 (14.2)	67,037 (13.0)	21,175 (37.7)	59,299 (37.8)
	디지털전자	15,513 (5.4)	8,687 (5.2)	24,199 (5.4)	8,256 (43.0)	22,968 (41.4)
수입	전체산업	37,557 (11.5)	22,617 (18.3)	60,174 (14.0)	19,120 (20.5)	52,798 (19.4)
	디지털전자	8,142 (3.2)	4,845 (5.7)	12,988 (4.2)	4,583 (16.8)	12,469 (19.4)
무역	전체산업	5,291	1,572	6,863	2,055	6,501
수지	디지털전자	7,370	3,842	11,212	3,673	10,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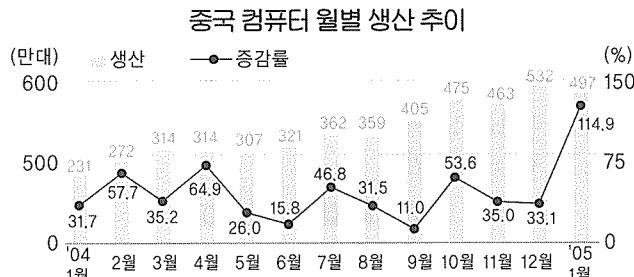
## 중국 정보통신기기 및 IC 시장동향

우성제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Research Center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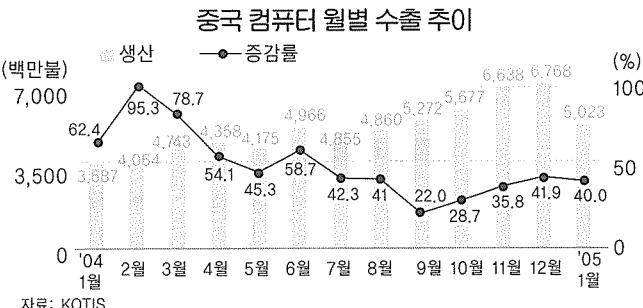
### 중국 정보통신기기 시장동향

#### ■ 컴퓨터

- 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4.9% 증가한 497만대
- 중국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로컬수요와 함께, 가격경쟁력 제고 및 중국 로컬시장 공략을 위해 세계 다국적기업의 중국공장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로컬기업들도 방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적인 컴퓨터 제조업체를 인수하는 등 중국기업의 성장이 두드려졌다.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0.0% 증가한 50억2천만불
- 세계최고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전세계 주요 수요처로 공급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컴퓨터수요 증가분에다 주요기업의 중국 생산 확대전략이 함께하면서 고성장 시현
-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대수출국인 미국은 35.4% 증가한 14억8천만불, 유럽의 물류중심지인 네덜란드는 80.5% 증가한 7억1천만불, 홍콩은 37.8% 증가한 6억4천만불, 일본은 39.3% 증가한 6억3천만불, 한국은 65.7% 증가한 1억5천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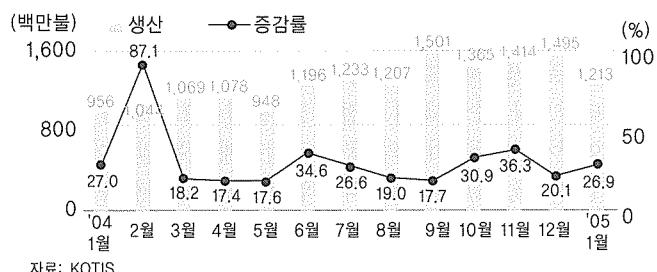


- 1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6.9% 증가한 12억1천만불
-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에서는 HDD, 중앙처리장치, 디스플레이 등 완제품 제조를 위한 관련 핵심 부품 및 모듈의

수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반제품형태의 주변기기 위주로 수입이 증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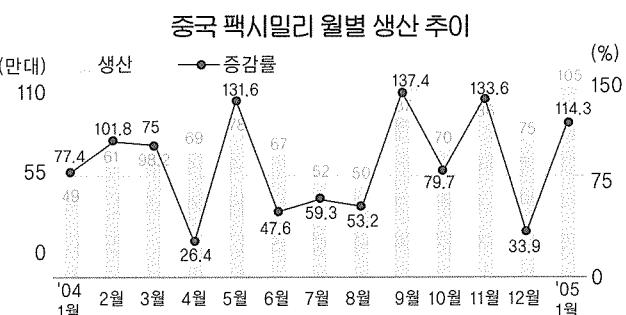
-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입국은 태국으로 57.5% 증가한 1억6천만불, 싱가폴은 28.6% 증가한 1억3천만불, 필리핀은 39.1% 증가한 1억3천만불, 미국은 6.8% 증가한 9천1백만불, 한국은 4.1% 증가한 6천5백만불, 대만은 8.3% 감소한 5천1백만불

#### 중국 컴퓨터 월별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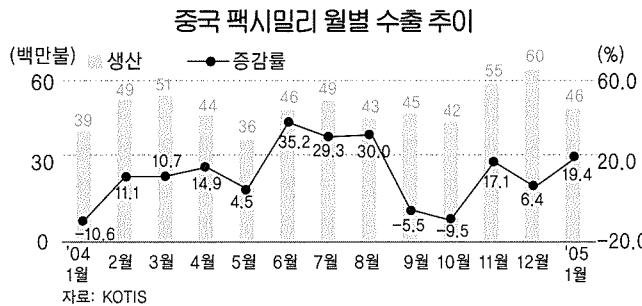


#### ■ 팩시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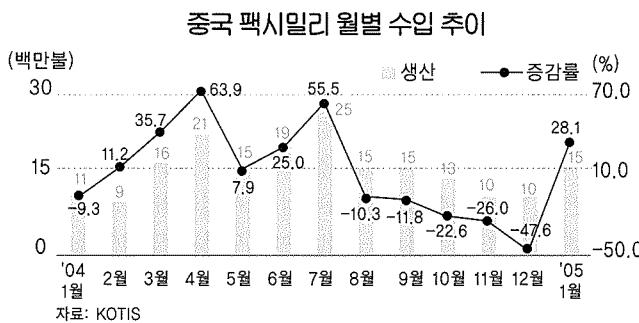
- 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4.3% 증가한 105만대
- 중국기업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무자동화, 정보화 관련 핵심 통신기기중 하나인 팩시밀리의 수요가 급증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대다수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고, 또한 부부가 집에서 회사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용 팩시밀리 수요도 크게 신장했음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9.4% 증가한 4천6백만불
- 우리나라에는 물론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자메일을 활용한 정보교환이 급증하면서, 팩시밀리 수요는 둔화되었으나, 주요기업의 중국공장 및 OEM 생산 제품의 본국 역수입은 견조한 증가를 보였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대수출국인 미국은 11.1% 증가한 1천3백만불, 일본은 15.1% 감소한 1천만불, 독일은 50.1% 증가한 3백만불, 네덜란드는 8.0% 증가한 3백만불, 한국은 535.0% 증가한 3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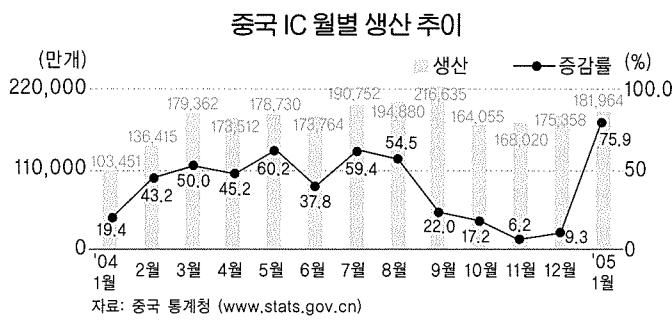


- 1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8.1% 증가한 1천5백만불
- 중국 로컬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작년 7월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중국 최대 명절인 2월춘절수요가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다국적기업의 공장이 밀집해 있는 말레이시아(1천만불, 46.3%) 생산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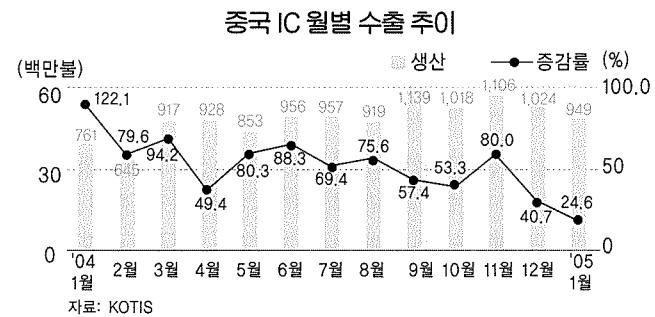
### 중국 IC 시장동향

- 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5.9% 증가한 18억2천만개
- PC와 컴퓨터 및 각종 디지털기기 부문에서 무한한 가능성 이 확인된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중국 로컬 기업은 중저가형 제품을 중심으로 동남아 반도체 업계를 위협하면서 빠른속도로 성장, 세계시장 MS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대만의 파운드리 전문업체를 발전모델로 설정, 마진이 많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인 파운드리 산업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음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4.6% 증가한 9억5천만불
- 제품의 특성상 컴퓨터 등 디지털전자기기를 많이 제조하는 국가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중화경제권 국가인 홍콩, 대만, 싱가폴이 상위3대 수출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홍콩은 13.8% 증가한 3억2천만불, 대만은 159.3% 증가한 1억2천만불, 싱가폴은 32.7% 증가한 1억2백만불, 일본은 34.6% 증가한 9천5백만불, 미국은 50.5% 증가한 9천3백만불, 한국은 7.9% 증가한 6천4백만불, 필리핀은 15.9% 감소한 5천1백만불, 말레이시아는 23.7% 감소한 3천만불



- 1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3.6% 증가한 51억3천만불
- 중국의 IC 생산은 파운드리 중심이기 때문에 컴퓨터,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제조시 필요한 DRAM 메모리, CPU 및 관련 모듈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생산국에서의 수입이 증가했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입국은 대만으로 22.8% 증가한 11억4천만불, 다음은 한국으로 111.3% 증가한 9억8천만불

